2007-8호

국가청렴위원회
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

2007. 8. 30.

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센터

기업윤리 브리프스
Business Ethics Briefs

< 차 례 >

01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(PRI)

13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

한국중부발전

18 국내 윤리경영 동향

기업 관련

정부 관련

☞ 이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(http://ethics.kicac.go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I.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(PRI)

☞ 이 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의 “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" 및 관련 자료를 에코프론티어(주)의 도움을 받아 번역, 정리한 것임

【PRI의 의의】

□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기업지배구조(Governance) 이슈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음

o PRI(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: PRI)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시 ESG 이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(framework)을 제공함

□ PRI는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원칙임

o 동 원칙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, 주요한(mainstream) 투자의사결정과 소유권 행사(ownership practices)에 ESG 이슈를 반영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행프로그램을 제공

□ PRI에 대한 서명은 원칙 이행에 대한 투자기관 최고경영진의 약속을 표명하는 것임

o 기관투자자들은 동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재무적 수익률(financial returns)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사회 전체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음

【PRI 개발 과정】

□ 2005년 초,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Kofi Annan은 세계적인 대형 기관투자자들에게 PRI 개발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
o 이에 12개국 20여 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, 인원을 파견하였으며, 투자업계, 정부기관, 시민사회, 학계의 전문가 등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개발 과정을 지원하였음

o PRI 개발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,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(UNEP FI)와 유엔글로벌콤팩트(UN Global Compact)가 전 과정을 총괄하였음

【PRI 서명시 이점】

□ PRI 서명 시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,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

o ESG 이슈의 반영을 위한 공통적인 틀(framework) 활용

o 세계 최대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기관 네트워크로부터 우수사례 공유

o 다른 서명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및 원칙 이행 비용 감소

o ESG 이슈 반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기업 평판 제고

o PRI 서명기관들의 연례 행사에 참여

o 표준화된 보고 및 평가 도구 공유

【PRI 전문】

□ 우리는 기관투자자로서 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상의 수익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음

o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 이슈가 개별 기업, 산업, 지역, 자산의 종류,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

o 또한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통해 투자자들이 바람직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

o 이에 우리는 수탁자 책무(Fiduciary Responsibilities)를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자 함

1. 우리는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한다.

□ 주요 실천프로그램

o ESG 이슈에 대해 고려할 것을 투자방침에 명시

o ESG와 관련된 방법론(tools), 계량화된 척도(metrics), 분석 도구 등의 개발을 지원

o 내부 펀드매니저들의 ESG 이슈 관련 역량을 평가

o 외부 펀드매니저들의 ESG 이슈 관련 역량을 평가

o 애널리스트, 컨설턴트, 브로커, 연구소, 평가회사 등 투자자문사(investment service providers)에 투자 관련 연구 및 분석 시 ESG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요구

o ESG 이슈에 대한 학계 및 기타 연구활동을 장려

o 투자전문가들에 대한 ESG 교육을 장려

2.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.

□ 주요 실천프로그램

o 적극적인(active) 소유권 행사 방침(ownership policy)을 PRI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여 공표

o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또는 의결권 행사 방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

o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여 능력(engagement capability)을 개발

o 주주권리의 증진, 보호 등과 관련된 방침, 규제 및 기타 표준 개발에 참여

o 장기투자관점에서 ESG 고려사항의 준수에 대한 주주결의안을 제출

o ESG 이슈들에 대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대화

o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관여시 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참여

o 펀드매니저에게 ESG 이슈와 관련하여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요구

3. 우리는 투자대상기업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.

□ 주요 실천프로그램

o ESG 이슈들에 대해 GRI(Global Reporting Initiative)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한 표준화된 정보공개를 요구

o 기업 연차보고서에 ESG 이슈들을 반영하도록 요구

o 기업들에게 ESG 관련 규범, 표준, 행동강령 또는 국제이니셔티브(예 : UN Global Compact) 등의 채택 및 준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

o ESG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주주들의 활동을 지원

4.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.

□ **주요 실천프로그램**

o 제안요청서(RFP : request for proposal)에 PRI와 관련된 조건을 포함

o 투자 결정, 감독 절차, 성과 지표, 인센티브 구조를 적절히 연계함(예 : 적절한 경우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장기간의 시계(time horizon)를 반영하도록 함)

o 투자자문사 등과 ESG 관련 기대치에 대해 논의

o ESG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투자자문사 등에 대해서는 관계 재검토

o 기업 경영에 대한 ESG 통합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을 지원

o PRI의 이행을 위한 규제 및 정책 개발을 지원

5. 우리는 책임투자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.

□ **주요 실천프로그램**

o 각종 기법, 자료, 지식 등의 공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에 지원·참여

o 관련된 최신 이슈들에 공동으로 대응

o 협력적 이니셔티브를 개발 또는 지원

6. 우리는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.

□ **주요 실천프로그램**

o ESG 이슈가 투자의사 결정 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공개

o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공개(의결권 행사, 경영 참여, 정책토론 등)

o 책임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사로부터 요구되는 사안을 공개

o ESG 이슈 및 PRI에 대해 기금 수탁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

o PRI와 관련된 이행상황 및 성과에 대해 "Comply or Explain" 방식으로 보고

※ Comply or Explain 방식 : 원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고,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

o PRI의 영향을 측정하도록 노력

o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보고서를 활용

□ PRI는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, 사회, 기업지배구조 이슈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책임투자원칙임

□ 동 원칙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수탁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PRI를 적용하고 이행할 것임을 다짐함

o 또한 지속적으로 동 원칙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것을 약속함

o 이것이 수탁자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임과 동시에 이러한 투자활동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믿음

□ 우리는 다른 투자자들이 PRI를 적용하도록 장려함

【기타 사항】

□ PRI이니셔티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?

o PRI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 및 소유권 행사시 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 이슈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□ PRI 이행은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

o PRI의 도입은 다양한 범위의 실질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, 이는 결국 투자이익의 향상과 리스크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옴

o ESG 이슈가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, 특히 장기적인 성과에서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음

o PRI 서명기관들은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,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, 비용을 절감하고, 연구 및 적극적 소유권 행사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

o 또한 PRI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이며 수익이 높은 시장조건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것임

□ 수탁자 책무와 관련하여 PRI가 갖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?

o PRI는 'ESG 이슈가 투자실적에 영향을 미친다'는 것과 'ESG 이슈를 고려한 투자가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, 따라서 수탁자 책무를 다하게 된다'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

o PRI는 수탁자 책무를 다하는 방식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

□ PRI와 사회책임투자(SRI : Socially Reponsible Investment)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?

o PRI는 전통적인 신탁 체계(fiduciary framework) 내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대형기관투자자들의 투자방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, 모든 투자 산업에 대해 적용되며, 사회책임투자 상품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님

o 하지만 PRI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, 투자분석 과정에 ESG 이슈의 통합 등 SRI 또는 기업지배구조 펀드매니저들도 활용하고 있는 실행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

□ PRI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분야에 대한 배제 또는 심사(screening)를 요구하지는 않음

o 투자자에 따라 ESG에 근거한 심사 방식이나 특정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, PRI는 이같은 방식보다는 기업 경영에 대한 참여를 제안하고 있음

o PRI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기업들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, 이러한 대형 투자자들에게 투자철수(divestment)나 특정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비실용적일 수 있음

□ PRI가 투자 관련 기업들(investment supply chain)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?

o 기관투자자들이 PR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리인이 투자과정에 ESG 이슈를 고려하도록 장려해야 하며,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원칙 1과 원칙 4에서 제시되고 있음

o 또한 펀드매니저, 애널리스트, 컨설턴트 등의 투자 관련 기업들은 원칙의 이행을 돕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PRI에 대응(respond)할 수 있음

□ PRI는 투자자들의 일상 업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?

o PRI는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틀(framework)을 제공함

o 서명기관들이 이를 위한 방침과 절차를 개발하여 이행하고자 할 경우, PRI 사무국은 이러한 활동들을 적극 지원할 것임

o 또한 서명기관들은 협력 기회, ESG 이슈를 다루는 지침을 활용할 수 있고,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음

o 이외에도 PRI는 ESG 이슈가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여 투자자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

□ 누가 서명할 수 있는가?

o 서명기관은 아래의 세 범주로 나누어짐(서명은 조직의 최고경영진이 해야 함)

① 자산소유기관(Asset owner)

· 장기퇴직연금, 보험 및 기타 자산(연기금, 정부준비금, 재단, 기부금, 보험 및 재보험기업, 수탁기관 등)의 최종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

② 자산운용기관(Investment manager)

· 기관 또는 리테일 시장의 자산을 제3자의 입장에서 운용하는 자산운용기관

③ 투자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(Professional service partner)

· 자산소유기관 또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

· 이러한 서비스 기관은 자체적인 권리를 갖고 자산을 운용하지는 않지만, 그들의 고객인 자산소유기관이나 자산운용사가 ESG 이슈에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

· 투자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들이 PRI에 서명한다는 것은 자산운용과 ESG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, 또한 고객들의 원칙 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이러한 서비스의 점진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을 의미

o 서명기관은 그들이 속하는 범주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, PRI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범주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

- 이 범주는 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, 일반적으로 제3의 고객보다 자신의 펀드를 더 많이 운용하는 투자자는 자산소유기관으로 분류됨

□ PRI 서명은 SRI펀드나 ESG 활동만을 위한 것은 아님

o PRI를 조직 전반에 걸쳐서 투자나 소유권 행사 등의 활동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, 특정 자산 클래스나 상품에만 적용하려는 것은 아님(이는 서명기관의 세 범주 모두에 해당됨)

o 즉, PRI는 최고경영진이 투자기관의 전반적인 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원칙 준수를 서약하는 것임

o 비록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, 사회적 책임투자가 주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

□ 한 투자기업집단의 구성이 다양한 경우 독립적으로 서명해야 하는가?

o 개별 자회사가 아닌 모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전체 조직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

o 그러나 소속된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소유기관, 자산운용사 또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각자 다른 범주에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함

□ 서명에 따르는 금전적인 의무가 있는가?

o PRI 서명과 관련하여 의무적인 입회비는 없음

o 하지만 서명 지원, PRI 활성화 등 사무국의 업무추진을 위해 10,000 달러의 자발적 기부금을 권장

□ PRI 이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가?

o 투자자들은 PRI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 또한 달라질 것임

o 서명기관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업무시간을 할당하여 PRI가 제안하는 활동 유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, 다른 투자자들이 PRI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행하는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
□ 서명 후 원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?

o PRI와 관련된 법적, 규제적 제재는 존재하지 않으며,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

o 그러나 서명만 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판적 리스크는 감수해야 할 것임

o 하지만 PRI는 대부분의 서명기관이 꼭 지켜야 할 규제적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진행과정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

o 초기에는 혁신, 협력, 실행을 통한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

o PRI 연례보고 및 평가 조사는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, PRI 서명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동 조사에 참여하고, 그 도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사항을 보고하는 것임

□ PRI 프로젝트의 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?

o 서명기관 중 자산소유기관을 대표하여 선출된 11명의 대표자, 유엔기구 대표인 유엔환경계획,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대표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

□ PRI는 세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?

o PRI는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투자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, PRI의 도입은 투자업계와 산업계 전반에 걸쳐 ESG 이슈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임

o 점차 더 적극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새로운 연구와 더 나은 방법론(metrics)이 개발될 것임

o 기업 경영진은 ESG 이슈의 관리를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, 따라서 기업의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결정하게 될 리스크 및 보상의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임

o PRI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ESG이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도록 할 것이며, 이를 통해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것임

※ 2006년 4월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최초의 PRI 서명식이 개최되어 약 30개 기관(CalPERS, NYCERS 등의 연기금, Thailand, Ireland, Norway 등 정부유관 연기금, BT Pension Scheme 등 기업연금, ABP, Groupama, Henderson, Hermes, Mitsubishi UFJ 등 기관투자)이 서명하였으며, 2007년 7월 말 현재 전 세계 220개 금융기관(연기금 포함)이 PRI에 서명하였고 이 금융기관들의 총 자산규모는 10조 달러에 달함

II.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

□ 한국중부발전의 윤리경영 사례*

* 2007. 8. 24일 한국중부발전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, 정리한 것임

≪윤리경영 추진 체계≫

목표

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기업 구현
"Global Clean Power Company"

변화와 혁신

기본방향

윤리경영시스템	조직구성원	기업문화
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시스템 구축	**투명성·청렴성**에 바탕한 업무처리	**사회**와 함께하는 윤리적 조직문화 구축

추진전략

· 글로벌 윤리표준 정립 ·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 선도	· 체계적 청렴도 제고 활동 수립 및 시행 ·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·시스템 개선	· 기업 - 사회 상생 '지속가능'의 길 지향 · 협력사와 상생경영

≪윤리경영 추진 로드맵≫

도 입 ('02~'03년)	정 착 ('04~'05년)	고도화 ('06~'09년)	글로벌화 ('10~)
· 윤리강령 제정/선포 ·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	· 윤리조직/제도 효율화 · 윤리교육프로그램 운영	· 기업 윤리문화 정착/선도 · 청렴기업 이미지 강화	· 세계 100대 기업수준 윤리경영 시행 · 국내외기업과 윤리경영 Network 구성

≪윤리기준 체계≫

❑ 윤리헌장 : 기업이념과 기본적인 가치관, 행동의 기본원칙 제시
❑ 윤리강령 :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윤리적 판단기준 제시
❑ 행동규범 :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규정
❑ 행동지침 :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관련자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 제시

≪주요 추진현황≫

❑ 리더십

○ 윤경포럼 CEO서약 참가 및 경영진 청렴준수서약, 윤리강령준수서약 시행

○ 강력한 윤리경영추진 천명 및 윤리자문단 운영을 통한 실천의지 전파

- 최고경영자와 중부혁신포럼 및 윤리혁신위원회 운영(분기 1회)

○ 경영진의 솔선수범 봉사활동 적극 참여

- 관내 독거어르신 위문, 불우아동 초청행사,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

○ UN 글로벌콤팩트 가입('06.6)을 통한 글로벌 윤리표준 도입

* UN GC Leaders Summit 참여('07.7)로 세계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이행

❖ 글로벌 콤팩트 이행노력

구 분	추 진 내 용
인 권	· 외국인근로자보호지침 제정 · 운영,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시행 · 외국인 근로자 대상 봉사활동(한국어 교실 등)
노 동	· 협력업체 임금지급 실태조사 시행 · 가족 친화경영 추진(WLB), 직원복지 만족도 조사 시행 · 중부웰빙 2012 종합복지계획 수립운영
환 경	· ECO 2015 환경경영전략 수립 · 시행,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 확대 · 환경회계시스템 구축 · 운영, 환경성과평가시스템 도입 · 환경보고서, 기후변화협약 홍보 · 교육용 책자 발간
반 부 패	· 내부신고자보호지침 제정 · 운영(내부부조리신고센터) · 美 Sarbanes-Oxley법 등에 근거한 내부회계통제 평가 · 클린카드제,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사규화

❑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

○ 지속가능경영 마인드 확산을 통한 직원 공감대 형성
○ 지속가능경영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 선정·시행
○ 지속가능경영 관련 T/F팀 워크숍 및 초청강연 시행
○ 지속가능경영 핵심성과지표 설정·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강령 제정(예정)
❖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('06. 9)

❑ 시스템 및 제도

구 분	내 용
계 약	· 청렴계약제, 전자입찰 확대, 계약규정 및 협력업체 등록관리 개선 · 해피콜 제도를 통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, 수의계약 점검회의 시행
인 사	· 다면평가제, 청렴도 대상직무 인사관리기준 제정·시행 · 열린 채용제도(학력, 연령제한 폐지)
중소기업	· 중소기업 CEO와 미래경영포럼 운영, '중소기업과 하나되기' 운동 · 국가생산성경영시스템 구축지원, 경영컨설팅 지원 · 협력중소기업 생산·운영자금 대출지원(윈-위드론)
사회공헌	· 볼런티어 휴가제 도입, 봉사마일리지 도입 예정 · 봉사활동 우수직원 포상제도
환경경영	· 환경회계시스템 구축·운영, 환경성과평가시스템 도입 · 녹색구매체제 도입, 환경감사시스템 강화 · 환경경영위원회 운영, 환경친화설비 건설
기업문화	· 가족친화제도 도입·운영 - '가정의 날' 운영, 주말농장 운영, 가족 초청행사 개최 등

❑ 모니터링 및 피드백

구 분	대 상	내 용	방 법	시행횟수
윤리의식 수준조사	내부직원	· 윤리경영에 대한 전반적 의식 · 사회공헌, 책임의식 평가 · 청렴도 관련사항	온라인 조사	연 2회
자 체 청렴도조사	외부고객 (협력업체 등)	· 부패인식, 부패경험, 업무환경 · 행정제도, 개인태도, 부패통제	전화 인터뷰	연 2회
전화응대 친절도 조사	내부직원	· 전화응대 친절도 종합평가 및 Level-up 방안 모색	전화 인터뷰	연 2회

❖ 신문고, 윤리경영핫라인 등 상시 모니터링 운영

❑ 사회공헌

○ 3대 기본프로그램 : 회사 보유자원과 사업특성 반영

구 분	추 진 내 용
러브하우스	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
푸른산 맑은물	1사업소 1산하 가꾸기
문화사랑 발전소	지역문화예술 육성

○ 아토피 치료지원 특화프로그램 (FFA : 'Free from Atopy') 추진

-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NGO와 협약체결 및 공동수행

구 분	추 진 내 용
아토피 치료지원	정기검진 및 치료지원 등 2개 프로그램
아토피 생활환경 개선	'친환경 러브하우스' 등 3개 프로그램
아토피 정보제공 및 교육	'아토피맘 교실' 등 4개 프로그램

○ 기 타

- 사회봉사단 창단 3주년 특별활동 계획 시행('07)
- 1사1촌 자매결연, 농번기 일손돕기, 농산물 단체구매 등 지속적인 농촌사랑 실천
-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,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개설 등

❑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

내 용	시행횟수	주 관
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실시	기본교육 : '05.10 심화교육 : '07.09	경영혁신실
외부 전문강사 초빙교육 시행	분기 1회	경영혁신실
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소 순회교육 실시 (전화응대 친절도 피드백 및 교육 병행)	분기 1회	경영혁신실 감사실
신입사원 윤리경영 교육 실시	채용시	경영혁신실 관리처
처(실)·사업소별 자체교육 및 간담회 실시	분기 1회	처(실)·사업소별 윤리담당 부서

❑ 윤리의식 제고 및 실천

○ 청렴생활 실천 캠페인 지속 전개

- '07년도 연중테마 : 중부인의 '육렴(六廉)정신' 체질화
- 인트라넷 팝업창 게시, 개인책상, 사원수첩 등 부착용 청렴스티커 제작·배포

○ 전직원 청렴준수 윤리명함 제작

- 전직원에게 윤리 캐치프레이즈 문구 삽입 명함 제작 활용

○ 윤리경영 실천 동영상 상영 및 e- Poster 제작 ·배포

청 렴 홍 보 물	윤 리 명 함	윤 리 e-Poster

≪윤리경영 추진 주요 성과≫

○ 청렴도 조사 3년 연속 1위 달성(2003~2005) : 한국전력 주관

○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 3년 연속 5단계 달성(2005~2007) : 기획예산처 주관

○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종합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(2006)

○ 공기업 최초 생산성경영체제 6등급 달성(2006) : 한국생산성본부 주관

○ 대한민국 사회공헌기업 선정(2006) : 서울신문 주관

○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판로지원 최우수기관 선정(2006) : 정부주관

○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(2005, 2006) : 한국능률협회 주관

○ 국가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(2006) : 산업자원부·환경부 주관

III. 국내 윤리경영 동향

【 기업 관련 】

◎ 우리은행, '우리은행 자원봉사단' 창단 (7.30)

— 우리은행은 임직원 자원봉사단과 비영리단체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,204명 규모의 '우리은행 자원봉사단'을 창단

o 자원봉사단은 은행장을 단장으로 각 사업본부 및 영업본부, 본부부서 및 전국 영업점까지 1,204명의 자원봉사 리더로 구성하고, 전행 자원봉사는 홍보팀, 영업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리더를 중심으로 운영

o 향후 연 2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, 기부금 출연보다는 4만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전개,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영업점 및 개인에 대한 시상 실시 및 연간 3일 이내의 자원봉사 휴가제 시행 예정

◎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, 상장사 676개사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조사 결과 발표(7.30)

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76곳을 조사한 결과, 지난 4년간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

o 지난 2004년 38.68%였던 지배구조 수준은 2005년 39.56%, 2006년 41.77%, 2007년 42.01%로 높아졌음

- 그러나 득점률 100%가 만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준임

o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높았으며, 부문별로 주주권리 보호(60.93%)는 비교적 높은 반면 이사회 지배구조(28.4%)는 여전히 좋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
※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의 평균득점율은 지난해보다 1.9%포인트 상승한 60.87%(이는 전체 기업 평균 득점율보다 18.86% 높은 수준)

o 공시(36%), 경영과실 배분(35.33%)은 지난해보다는 좋아졌지만 절대 점수로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, 감사기구(43.53%)는 지난해(46.94%)보다 오히려 득점율이 낮아졌는데, 외부감사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는 곳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

o 업종별로 보면, 통신업 상장사들이 월등히 좋은 성적을 나타냄

- 통신업의 득점율은 76.93%로, 은행업(69.74%)·금융업(53.87%)·보험업(52.25%)·증권업(45.92%)보다 높았음

- 반면 어업은 득점율이 38.8%로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하였으며, 비금속업(38.57%)·전기전자업(38.17%)·섬유의복업(37.19%)·종이목재업(35.33%) 역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

◎ 환경운동연합, 국내 35대기업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결과 발표(8.9)

—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35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경영지수(SMI : Sustainable Management Index) 평가 결과를 발표

o 이번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는 지난 2005년 5월 발표한 ´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(SMILE-1)´과 최근 ISO(국제표준화기구)에서 제정 중인 ´ISO26000´(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)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, 인권, 노동, 소비자, 지배구조, 공정경쟁, 사회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힘

o 특히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해 ´기후보호 분야´를 추가하였고,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와 관련 정도가 적은 ´인권 분야´는 노동권과 통합하여 평가

—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 35대 주요 대기업들의 평균 지속가능경영지수(SMI)는 57.3(B^- 등급)으로 나타남

o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은 ´B^+´를 기록한 유한킴벌리・삼성전기・삼성SDI・한화석유화학으로 나타났으며, ´B^o´로 평가된 기업들은 포스코・대우조선해양・아시아나항공・현대제철・LG필립스LCD・하이닉스반도체・SK텔레콤・KT 등인 것으로 나타남

— 특히 화학 관련 기업들의 평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

o 화학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화석유화학은 ´B^+´로 2005년 보다 1단계 상승하였고, LG화학은 ´B^-´로 1단계 하락, SK인천정유는 ´B^-´로 2단계 상승하였으며, 삼성토탈·에쓰-오일·GS칼텍스·현대오일뱅크 등은 모두 ´C^+´, 삼성석유화학은 ´C^o´로 최하위권을 기록

— 2005년도 지속가능경영지수(SMI)와 비교하면 삼성전기・대우조선해양・KT 등 16개 기업이 한 단계 이상 상승하였고, 현대오일뱅크・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은 1단계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

o 특히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2005년 ´C^o´ 등급에 이어 2007년에도 ´C^-´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, 이는 환경경영 체제 및 기후보호 노력이 미비하고 전환사채 변칙증여 등 기업투명성 및 공정경쟁에서도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기 때문임

◎ 대우캐피탈, 윤리경영 강화 선언(8.16)

— 대우캐피탈은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선언문에 서약하고 사내 윤리경영 센터를 오픈할 계획

o 윤리센터 오픈을 계기로 전 임직원의 윤리 의식 교육실시, 자체 사내 감사 강화 등 윤리경영 실천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홈페이지에도 사이버 윤리센터를 개설해 고객 신고 기능을 강화할 예정

◎ 솔라빌리티, 지속가능경영 평가 결과 발표(8.18)

— 지속가능경영 리서치기관인 솔라빌리티는 상장기업 350여 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예비평가하고 이들 가운데 130개 기업을 심층분석한 결과를 발표

※솔라빌리티 : DJSI(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)를 평가하는 스위스 SAM사의 파트너회사로, 지난 6월 20일 국내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와 함께 UNPRI (유엔 책임투자원칙)에 서명하였음

o 솔라빌리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의뢰를 받아 지난 4개월 동안 수행한 이번 평가에서 비재무적지표 중 재무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지표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음

— 분석결과에 따르면, 경제・환경・사회 영역에서 상위 50위에 속하는 기업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300% 이상의 주가상승률을 보였음

o 사회 분야 상위 50위 기업은 평균 325.7%의 주가상승률을 보였고, 경제 분야는 323.49%, 환경 분야는 318.86%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KOSPI 상승률(105.3%)의 3배가 넘는 수익률임

— 지속가능경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포스코였으며, 하이닉스, 삼성SDI, 한화석유화학, 신한지주, SK텔레콤, 대우조선해양, 아모레퍼시픽, 현대해상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, LG전자, 삼성전자도 상위점수를 기록

— 하지만 솔라빌러티는 "평가상위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"고 밝혔으며, 심층평가 대상 기업 127개 가운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12.4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

o 윤리강령을 채택한 기업은 74%였으나, 다수의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 영역의 주요 이슈를 윤리강령에 포함하지 않았으며,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갖추지 않았음

o 일부 기업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, 윤리준수 자가진단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면서도 담합, 내부자거래, 고객정보 유출이 적발된 적이 있었음

o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스스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음

o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사망자, 산재손실일수를 보고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,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한 기업도 다수 있었음

o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85%에 이르렀지만, 이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 활동을 넘어 기업의 핵심경영가치로 이어진 기업은 10%에도 미치지 못했음

◎ 기업책임시민센터·함께하는시민행동 등,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결과 발표(8.19)

— 기업책임시민센터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보고서 작성지침 제정기관인 GRI(Global Reporting Initiative)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, 경제·환경·노동·인권·제품책임·지역사회 등 6개 영역에 걸쳐 지난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22개사를 평가하였음

o 평가 결과에 따르면,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22개사의 지속가능경영 점수가 100점 만점에 39점인 것으로 나타남

- 평가 대상 기업들은 제품책임과 지역사회 부문에서 45점, 44점을 받은 반면, 인권·경제 영역은 36점을 기록

o 유한킴벌리가 평균 57점으로 지속가능경영 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한국남동발전(55점)과 포스코·대우증권(각 52점)이 그 뒤를 이었음

◎ 모두투어,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(8.25)

— 모두투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, 투명한 여행 업계를 선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공표

o 모두투어의 윤리경영 3대 핵심요소는 윤리강령, 준수감독조직, 교육을 통한 공감 등이며, 특히 전 임직원이 올바른 윤리적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을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고객·주주·협력회사·사회·임직원에 대한 윤리로 제정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

◎ 대한상공회의소 등, 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설명회 개최(8.28)

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에코프론티어㈜,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동으로 '수도권 2·3종 사업장 대상 배출권 모의거래 설명회'를 개최

o 이는 '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'에 따라 황산화물(SOx), 질산화물(NOx),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임

※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

-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을 1~5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, 연간 8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종 대형 사업장 191개소는 이미 지난달부터 총량관리제가 적용되어 운영 중임
- 2종(연간 20톤이상)과 3종(연간 10톤이상) 사업장은 오는 2009년 7월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

— 이러한 총량관리제에 의해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허용 수치 이하로 줄인 사업장이 잔여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돈을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출권 거래의 개요

o 배출권 모의 거래는 총량관리제 실제 적용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접속 방식으로 실시되며,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

— 한편 수도권에서 연간 오염물질을 10톤 이상 8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2·3종 사업장의 수는 약 1,200개에 달해, 오는 2009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의 1,400개 가량의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

◎ 전국경제인연합회, '제1차 환경위원회' 개최(8.28)

— 전경련 환경위원회는 '제1차 환경위원회'를 개최하고, 산업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'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'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

o 이날 회의에서는 '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 실천계획' 추진일정·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, 9월 회장단회의에서 산업계 자율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함

※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

- 업종별로 온실가스 및 산업폐기물 등의 중장기 삭감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·NGO·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3자 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후 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계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

【 정부 관련 】

◎ 노동부,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(8.6)

—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7월중(7.3~7.26) 300인 이상 임금교섭지도대상 사업장 1,692개소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WEB 설문조사를 실시(응답업체 766개소, 응답률 45.3%)

o 응답업체중 이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기업이 36.7%(281개소), 현재 대책을 수립중인 기업이 34.5%(264개소)로 71.2%(545개소)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인 것으로 조사됨

- 다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관망한 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 기업은 22.2%(170개소)이고, 대책 수립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.6%(51개소)였음

o 금년 들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('07.1.1～6.30)에 대해서는 응답 사업체(766개소)의 36.6%(280개소)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(7,892명)이 있다고 답하였음

- 설문에 답한 766개 기업 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520개소이었고, 이 중 341개소(65.6%)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며 그 규모는 31,002명이라고 응답

o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재 정규직 대비 90%이상 임금수준을 받는 곳이 기간제근로자 사용업체(520개소)중 48.3%(251개소), 80%이상 73.5%(누적치, 382개소)로 나타났음

-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에는 정규직 대비 임금 90% 이상이 70.0%(+21.7%P, 113개소 증가, 총 364개소), 80% 이상이 90.8%(+17.3%P, 90개소 증가, 총 472개소)로 증가될 것으로 응답

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거나 고민되는 사항(1순위 응답)으로는 '차별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'가 50.9%(390개소)로 가장 높았으며, '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력활용의 신축성 저하' 35.0%(268개소), '노조결성이나 분쟁우려' 9.0%(69개소), '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' 5.0%(39개소)의 순으로 나타났음

o 향후 정부가 기업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사항(1순위 응답)으로는 '2년 기간 제한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'이 39.0% (299개소), '차별시정 판단기준 안내' 28.2%(216개소), '정규직 노조의 양보 분위기 조성' 12.3%(94개소), '파견허용 근로자의 범위확대' 12.0%(92개소), '기업의 임금직무체계혁신 지원' 8.5% (65개소)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◎ 산업자원부, REACH 대응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T/F 구성·운영(8.14)

— 산업자원부는 '08.6월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되는 REACH 제도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산자부-관련 단체 및 관련 협회간 REACH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

※REACH(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)
- EU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·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·수입자 정보제공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

o 그간 산업자원부에서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해 『REACH 기업지원센터』(www.reach.or.kr)를 운영하여 규제대응 정보 제공 및 사전등록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는 한편,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해 왔음

o 그러나 REACH 제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, 등록물질에 대한 기초 정보 부족 등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여 업종별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T/F를 구성하기로 함

— 이번에 구성하게 된 실무 위원회 및 업종별 T/F는 산업자원부(산업환경팀), 기업단체(대한상공회의소, 전경련, 중소기업중앙회), 업종별 협회(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,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)로 구성됨

① 실무위원회의 역할

o 단체 및 업종협회의 REACH 대응 실무 책임자로 구성, REACH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·대응 및 REACH 등록 대상 여부 및 사전등록 방법, 등록대상 물질별로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

o 공급망(Supply Chain)상 물질흐름정보 파악

- 동일 업종·협력업체 및 異업종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, 모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상 물질정보 D/B 구축 추진

② 업종별 T/F 구성·운영(5개 주요업종을 중심으로)

o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REACH 대응 길라잡이 제작 (REACH 기업지원센터와 협조) 및 배포

o 교육·홍보실시 및 정보교류 채널 구축 등 협력업체 지원

- 업계 REACH대응 동향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,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시

◎ 노동부,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'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' 시행(8.16)

—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기업생산성 및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,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'사회적 일자리 사업'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(Employee Assistance Program : EAP)을 시작하기로 하고 (사)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와 (사)한국EAP협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

o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상담인력 95명, 운영인력 9명 등 총 104명을 신규 채용하여, 인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희망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서비스(직무관련 상담, 일·가정양립 관련 상담, 일반상담 등)를 제공할 계획

※ EAP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만 도입되어 있는 생소한 제도이나, 미국의 경우 '30년대부터 알코올 문제해결을 위해, 일본의 경우 '80년대부터 근로자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도입되었음

- 미국에서 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(Work-Family Roundtable of the conference Board, 2001)에 따르면 EAP는 직원의 사기증진(68%), 생산성 향상(62%), 결근 감소(59%)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◎ 산업자원부 등, '기후변화 대응 신(新)국가전략'을 수립, 발표(8.22)

—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'기후변화 대응 신(新)국가전략'을 수립·발표하고,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·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

o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(탄소배출권) 등록소의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발급할 예정

o 기업들은 이 배출권을 우선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 판매함

- 정부와 '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'을 맺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됨

o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하거나 윤리경영 등을 이유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에도 배출권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며, 국내에서 인증된 배출권이 국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제 배출권시장 등에도 수출을 추진

- 그렇지만 이 배출권이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으면 정부는 올해 확보한 50억 원의 예산으로 이를 사들일 계획

o 정부는 배출권 시장 규모가 올해 1500억 원, 2012년에는 45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

◎ 산업자원부·전국경제인연합회, '2007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' 개최(8.24)

—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영전략 모색을 위해 '2007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'를 개최

o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거래비용이론으로 유명한 세계적 경제학자 올리버 윌리암슨 교수(Prof. O.E.Williamson, UC버클리대)가 “기업간 거래, 협력의 중요성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,

o 현대자동차 김동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“FTA시대 경쟁력 제고전략, 글로벌 구매환경의 변화와 상생협력”이라는 주제로 상생협력을 통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대해 강연하였음

o 또한 도요타의 핵심협력업체인 기후차체공업의 회장인 호시노 데쓰오(星野鐵夫) 회장이 도요타와의 상생협력 노하우와 한국적 시사점에 대해 강연하였음